경제개방바로알기 ③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WTO 서비스협상및그영향에대하여보다 정확히이해할수있도록만들어졌습니다.

특히, WTO 서비스협상에따른서비스개방의영향을향후 쟁점이될주요분야를중심으로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 들의관심과이해를높일수있도록노력하였습니다.

집필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김준동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강준구연구원

차 례

Ⅰ. WTO 서비스협상이란 무엇인가 5

Ⅱ. 신경제와 서비스산업 11

1. 신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13
2. 신경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16

Ⅲ. 서비스 개방의 효과 19

1. 서비스 개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 21
2. 유통서비스 개방은 어떠한 변화를가져왔는가 25

Ⅳ.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 31

1. 금융서비스개방은금융위기 재발을 가져올 것인가 33
2. 통신 및 전력서비스개방은 공익성을 침해할것인가 37
3. 스크린쿼터제도의 철폐는 국내 영화산업을 붕괴시킬 것인가 42
4. 법률 · 교육서비스의개방은어떤효과를가져올것인가 45
5. WTO 서비스협상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48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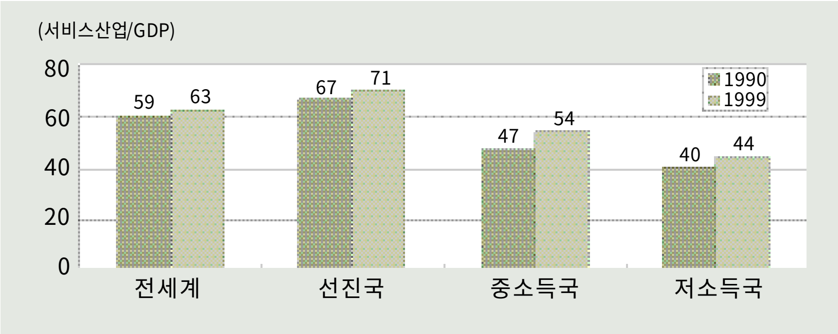
WTO 서비스협상이란 무엇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품 분야의 세계무역은 GATT 체제하에서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거치면서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이와 같이 상품 분야의 무역자유화가 크게 진전된 것과는 상반되게, 서비스 무역은 UR 이전까지는 다자간 체제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이처럼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미진했던 것은 전통적으로 서비스가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소비되는 비교역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각국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1999년에 선진국은 71%, 저소득국은 44%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활동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IMF의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Yearbook(BOP)에 따르면, 1999년 세계 서비스 무역은 2조 8651억 달러로 총 무역 중 2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무역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연평균 6.6%의 성장을 시현하여 동 기간 재화의 무역 성장률 6.3%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그 결과 서비스 무역은 지난 1989년 대비 8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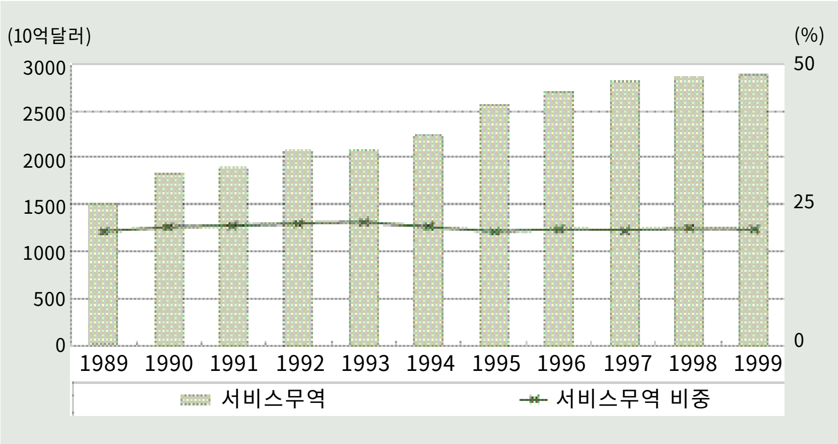
이와 같은 서비스 무역은 공산품의 무역과 다르게 네 가지 공급형태, 즉 국경간 공급(mode 1), 해외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3), 자연인의 이동(mode 4) 등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경간 공급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그 예로는 국제전화 서비스, 국제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등이 있다. 해외소비는

<그림 Ⅰ-1> 세계서비스업의 비중변화(1990, 1999)



주: 1) ISIC 50-99에해당하는산업을서비스산업으로분류하였음.
2) 선진국은 유럽 EMU 국가의 현황이며, 중소득국 및 저소득국은 World Bank의 분류기준에 따름.
자료: World Bank(2001. 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림 Ⅰ-2> 서비스무역추이(1989 99)



자료: IMF(2001. 2),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Yearbook.*

관광서비스와 같이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적 주재는 외국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예로는 유통서비스(대형유통할인점), 은행서비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인의 이동은 경영 컨설턴트, 패션모델 등 어떤 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 무역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공급형태별 무역현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앞에서 제시된 서비스 무역은 통계상의 제약으로 인해 국경간 공급을 중심으로 추계된 IMF의 BOP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 네 가지 공급형태로 서비스 무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BOP 상의 통계를 사용하여 추계하면, 세계적으로 일관된 통계가 없는 상업적 주재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서비스 공급형태 중에서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가 서비스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업적 주재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는 미국의 경우 이를 포함한 공급형태별 서비스 무역의 비중은 1997년 현재 국경간 공급이 41%, 해외소비가 19.8%, 상업적 주재가 37.8%, 자연인의 이동이 1.4% 수준으로서 국경간 공급과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무역이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제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이 증가하게 되자 UR에서 서비스 무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후 1995년 WTO 출범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발효하게 되어 처음으로 서비스 무역이 다자간 체제에서 자유화 과정을 밟게 되었다. GATS는 후속 라운드에서 점진적으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도록 협상을 추진하고, 늦어도

WTO 출범 후 5년 이내에 자유화협상을 재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2월 서비스협상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각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개방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 무역이 네 가지 공급형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WTO 서비스협상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러한 네 가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WTO 서비스협상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회원국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이외에도, 자유화 대상 분야에 적용되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내국민대우란 개방대상 분야에서 외국공급자와 내국인공급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접근이란 개방대상 분야에서 공급자 수를 제한하거나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수량적 진입장벽을 없애 외국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영업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II

신경제와 서비스산업

Ⅱ. 신경제와 서비스산업

1. 신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2. 신경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1

신경제에서서비스산업은어떤의미를갖는가

최근 세계경제의 둔화로 인해 ‘ 신경제(new economy) ’라는 용어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 신경제 ’를 기술의 괄목할만한 레벨업(level - up)으로 인해 생산성의 향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이는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세계경제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IT)의 발전에 힘입어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로 이행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중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Economist誌에 따르면, 신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IT의 발전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제고되고,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며, B2B 및 B2C 등 e - 비즈니스가 발전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변화는 매우 급격히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모든 국가가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최근의 신경제는 서비스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되었고 이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금융, 통신, 유통, 운송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각국이 새로운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생산, 판매, 재고관리, 마케팅, 물류, 커뮤니케이션 등에 적용하

<Box Ⅱ - 1> B2B e - 비즈니스의 효과

▶기업은 B2B로보다저렴한공급업체를쉽게찾아효율적인물품조달을할수있으므로, 조달비용을줄일수있다.

▶주문시스템이전화, 팩스에서온라인(인터넷)으로대체됨에따라주문오류가감소하여비용절감효과를얻게된다.

▶생산된재화와서비스의유통비용을효과적으로절감시킨다.

▶온라인거래는불필요한중개자(중개상)를제거, 효율적인공급망관리를가능하게하며재고부담을줄여준다.

▶직접적인비용절감외에도기업의효율적인조직개편등간접적인효과가크다.

자료: *The Economist*(2000. 9. 23)

게 되었고, 향후에도 이를 보다 넓은 글로벌 경제에 연계시킴으로써 새로운 생산 패러다임에 기초한 경제활동의 동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가장 단적인 예로,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기술발전은 전자상거래 또는 e - 비즈니스를 발달시켜 제조업체의 조달비용, 재고부담, 유통비용을 감소시켜 주고 효율적 조직개편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성화는 소비자들의 소비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백화점, 할인매장, 재래시장 등의 매장에 직접 가서 상품을 살펴본 후 구입을 하였으나,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대신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살펴보고 가격을 비교하여 구매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소비자에게 구매를 위한 시간과 매장을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주며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외에도 서비스산업은 전문직서비스, 교육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등 지식기반 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업종을 포괄함으로써 향후 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기업 및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혁신을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갖고, 글로벌 경쟁의 심화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상황이 서비스산업과 IT가 접목되고 있는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의 변화는 더욱 역동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이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세계경제 체제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동북아에서 주변국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있다.

2

신경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신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특히 국내외 기업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무역의 개방이 관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일례로 1999년에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총 취업자의 약 70% 수준에 이르지만 서비스산업의 총생산은 명목 GDP의 약 55%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 서비스산업이 열악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서비스공급자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국내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서비스산업 내에 비효율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신경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내의 기술발전이 '경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통서비스 개방의 경우에서처럼 산업구조를 개혁시키고, 금융서비스와 운송서비스 같은 분야에서와 같

이 첨단 서비스의 도입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신경제의 과실을 향유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각각의 서비스업종이 서로 연관되어 발전하기 때문이다. 즉, IT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종국에 가서 e-비즈니스의 활성화로 연결되어 신경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게 해주는 금융서비스, 정보전달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여주는 통신서비스,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과정에서의 운송서비스, 효율적인 사업운영 방법을 자문하는 컨설팅서비스, 필요한 기술인력의 훈련 및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서비스 등 제반 서비스업종이 동시에 발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서비스업종의 균형적인 발전은 국내 시장을 폐쇄하여서는 달성할 수 없고, 외국의 선진 서비스공급자에게 개방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전적 진입의 완화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을 위한 자유화가 이루어질수록 소비자보호 등 사후적 규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도 개방의 효과를 절감시키는 직접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보급의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II

서비스 개방의 효과

III. 서비스 개방의 효과

1. 서비스 개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
2. 유통서비스 개방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1

서비스 개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

서비스교역은 상업적 주재, 즉, 외국인투자의 형태로 공급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개방하면 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가 늘어나 기술이전 및 경쟁제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투자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여러 실증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 ▶ 숙련 노동자의 이동
- ▶ 거래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 ▶ 새로운 자본재 및 기술의 도입
- ▶ 선진 경영노하우의 도입
- ▶ 자체 연구개발
- ▶ 국내기업과의 경쟁 제고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즉, 외국 서비스공급자에 의해 좀더 다양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값이 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가 투입되는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표 III - 1> 주요국 업종별 노동생산성의 비교(1990년, 미국=100)

	농업	광업	제조업	건설	전기·수도·가스	운송·통신	유통·음식·숙박	금융·부동산·사업서비	사회·개인서비스	총계
프랑스	74	31	82	86	84	73	100	105	130	93
서 독	53	19	70	81	63	60	70	166**	178	86
영 국	53	NA	66	90	85	54	60	257**	86	73
미 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 본	25	31	79	89	106	50	70*	148	78	70
한 국	16	10	34	42	68	23	18	40	15	26

주: * 음식 · 숙박업을제외한것임.
** 부동산을제외한것임.
자료: Kim, Jong - Il and June - Dong Kim. 2000.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Working Paper 00 - 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able 9, p. 11.

<표 III - 2> 서비스산업 업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1970 97)

기간	제조업	건설	전기·수도·가스	운송·통신	유통·음식·숙박	금융·부동산·사업서비	사회·개인서비스	총계
1970 - 75	5.62	- 4.60	10.62	11.20	5.13	- 2.45	7.64	5.26
1975 - 80	6.06	2.10	12.54	2.24	- 2.87	- 6.26	3.16	4.40
1980 - 85	6.39	6.16	15.95	4.26	3.39	- 1.70	7.65	6.96
1985 - 90	4.76	4.19	3.05	3.49	7.37	1.02	3.65	6.08
1990 - 95	8.63	- 0.14	9.43	5.09	0.41	- 1.06	6.46	5.34
1995 - 97	9.87	1.48	6.32	7.17	1.54	- 1.13	0.57	4.83
1970 - 80	5.84	- 1.25	11.58	6.72	1.13	- 4.36	5.40	4.83
1980 - 90	5.58	5.17	9.50	3.88	5.38	- 0.34	5.65	6.52
1990 - 97	8.98	0.32	8.54	5.68	0.74	- 1.08	4.78	5.20
1970 - 97	6.56	1.54	10.02	5.40	2.60	- 2.02	5.33	5.55

자료: Kim, Jong - Il and June - Dong Kim. 2000.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Working Paper 00 - 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able 10, p. 12.

<표 **III** - 1>을 보면 199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전기 · 수도 · 가스 부문을 제외한 전 서비스업종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설과 금융 · 부동산 · 사업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유통 · 음식 · 숙박, 사회 · 개인서비스, 운송 · 통신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주로 UR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비스 개방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개방 전후시기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II-2**>는 1990 95년과 1995 97년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금융 · 부동산 · 사업서비스 분야의 노동생산성이 1985 90년을 제외하고 모든 기간에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것이 주목할 만하다. 금융 · 부동산 · 사업서비스 분야의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다른 분야에 비해 부진한 것은 이 분야의 경우 일부 사업서비스를 제외하고서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야 개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1995년 이후에 유통분야가 거의 완전개방이 됨으로써 거의 자유화가 된 유통 · 음식 · 숙박이나 부분적인 개방이 이루어진 운송 · 통신의 경우는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각각 1990 95년의 5.09%와 0.41%에서 1995 97년에 7.17%와 1.54%로 증가함으로써 개방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개방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국내기업지배구조상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 캐나다의 Bell Canada International(BCI)과 미국의 투자펀드인 AIG가 한솔PCS에 투자한 경우이다. 당시 BCI와 AIG는 한솔PCS의

경영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월적 다수투표권(super majority voting rights)’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통상적 사업에 관련된 결정은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이행될 수 있지만,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등 특정한 주요결정에 관해서는 총 16명의 이사중 13명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당시 이사회 16명중 한솔이 10명, BCI가 4명, AIG가 2명을 위임할 수 있었으므로, 이 제도는 사실상 대주주의 권리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이다. 또한 동 제도하에서 투자자간에 분쟁이 생겨 중재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쪽 기업이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매각하고 싶은 쪽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제안자는 오히려 자신이 제안한 가격에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대주주의 전횡으로부터 소주주를 보호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이 기업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도록 하여 경영환경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2

유통서비스 개방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하여 1991년 소매업에 대해 점포수 및 매장면적상 제한을 두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다. 1996년에는 소매업에 대한 점포수 및 매장면적상의 제한이 철폐되어 외국 대형할인점의 진출이 허용됨으로써 의미있는 개방이 이루어졌다. 그후 1998년에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건립에 대한 제한사항이 철폐되었으며, 2001년에는 고기도매업에 대해서도 투자비율 50% 미만의 외국인투자가 개방되는 등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유통서비스 부문의 개방은 대형할인점이 개방된 1996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방화의 결과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6년 이후 까르푸, 월마트 등 대형할인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나 1998년도에는 5억 1,900만 달러로서 총 외국인투자 유입액중 약 10% 정도를 기록하였다. 또한 1996년 이후 외국 대형할인점의 진출에 대응하여 국내 유통업체들의 대형할인점 설립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국내 소매업에서 외국할인점과 국내 유통업체의 할인점간 경쟁이 증대하고 있다(표 III - 3).

유통서비스 부문의 개방은 중소형 소매점들의 영업에도 큰 영향을 주

<표 III-3> 외국 할인점 진출현황 및 국내 대형 할인점 점포수 증가 추이

구분	진출시기	점포수(점)				
		1997	1998	1999	2000	2001(1 8)
까르푸	1996	3	6	11	20	21
월마트	1996	4	4	5	6	7
코스코	1998(1994)	2	3	3	4	5
프로모데스	1999	-	-	2	5	5
테스코	1999(1997)	1	1	2	7	9
외국업체 계		10	14	23	42	47
(구성비)	-	(16.4%)	(16.5%)	(20%)	(25.6%)	(25.7%)
국내업체 계	-	51	71	92	122	136
(구성비)		(83.6%)	(83.5%)	(80%)	(74.4%)	(74.3%)
할인점 업계	-	61	85	115	164	183

주: ( )안은국내업체진출시점임. 프로모데스의 2000년, 20001년점포수는잠정치임.
자료: 체인스토어협회.

었다. 외국 대형할인점의 진출 및 국내 유통업체의 대형할인점 설립 증가로 인해 크게 타격을 받은 중소형 소매점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체인이나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구매,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소매업의 조직화 및 체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유통단계의 축소, 유통업체의 가격결정권 확대 등 구조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즉, 구매력을 가진 대형할인점이 확산되고 중소유통업이 조직화되면서, 제조업이 지배하던 유통업계의 주도권이 소매업체로 넘어가는 구조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선 경쟁격화로 유통비용 절감 필요성이 높아진데다 신선한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종전 5 6단계에 이르던 유통단계가 2 3단계로 대폭 축소되고 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은 중간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로부

종 전

· 농산물(5단계) : 생산자→수집상→중매인→도매인→소매상→소비자
· 수산물(6단계) : 생산자→1차 위탁판매인(수협)→중매인→2차 위탁판매인(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인→소매상→소비자
· 가공식품(3단계) : 생산자→도매상→소매상→소비자

현 행: 어느 할인점의 사례

· 농수산물(2단계) : 생산자→할인점→소비자(70%)
(3단계) : 일부지방생산자→도매시장→할인점→소비자(30%)
· 가공식품(2단계) : 생산자→할인점→소비자

터 가공식품을 직접 구입하고 있으며 농수산물도 직거래를 강화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제조업체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준소비자가격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대형할인점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경영전략에 따라 판매가격을 새로이 설정하는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제도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오픈 프라이스 제도하에서는 제조업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격 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하게 된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에 自家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저가의 PB(Private Brand)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유통업체의 가격결정권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통서비스의 개방은 유통구조의 선진화에 따른 유통단계

의 축소, 생산업체에 대한 가격인하 요구 등을 통한 구입원가 절감으로 판매가격의 인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유통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마진율이 축소되고, 구입원가 절감을 위한 유통업체의 노력은 자체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촉발하여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정착, PB 상품 개발의 활성화 등 유통시장의 구조변화는 소매가격 하락을 통해 소비자물가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6년 대형할인점의 등장 이후 1999년까지 대형할인점 및 경쟁업체의 가격인하는 소비자물가를 총 1.79% P(연평균 0.45% P) 정도 하락시킨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제 최근 대형 할인점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 경쟁 유통업체에 비해 평균 10% 정도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 - 4). 이러

<표 III - 4> 서울소재소매업체별 가공식품 가격비교 (2000년 1월 15일 현재)

(단위: 원)

품 목	단 위	할인점 (A)	백화점 (B)	슈퍼마켓 (C)	가격차 비율(%)	
					(A−B)/B	(A−C)/C
밀가루(제일제당)	1kg 1포	600	680	670	−11.8	−10.4
신라면	120g 1봉지	340	370	370	−8.1	−8.1
쥬스(델몬트)	1.5 ℓ 페트병	1,550	1,800	1,700	−13.9	−8.8
맥주(OB라거)	355㎖ 1캔	1,160	1,220	1,260	−4.9	−7.9
불가리스(남양유업)	500㎖ 1병	600	700	600	−14.3	0.0
치약(페리오플러스)	190 g 1개	1,350	1,600	1,350	−15.6	0.0
분유(매일맘마Q)	800g 1캔	13,000	13,300	13,400	−2.3	−3.0
계란(일반위생란)	10개	950	1,000	1,350	−5.0	−29.6

자료: 소비자보호원, 서울장바구니물가(서초구생활필수품조사가격).

<표 Ⅲ-5> 대형유통업체의 마진율 추이

(단위: %, %P)

	1995(A)	1996	1997	1998(B)	B－A
대형수퍼마켓	17.8	16.1	15.0	13.6	－4.2
백화점	24.2	24.8	22.6	21.7	－2.5

주: 마진율＝1－매출원가/매출총액.

한 할인점의 저가전략에 대응하여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 직접 경쟁업체뿐만 아니라 소매점, 재래시장 등 영세업체들도 마진율 축소를 통해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형 슈퍼마켓과 백화점은 마진율을 각각 4.2%P 및 2.5%P 정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

유통서비스의 개방 이후 월마트(Wal-Mart) 등 종합할인점뿐만 아니라 Toys'R'Us, Circuit City, Office Depot, Gap 등 전문 품목별로 체인을 형성한 전문할인점(Category Killer)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 유통업체의 진출로 이들이 개발한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선 선진 유통업체들은 업태면에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품구색의 정도에 있어서도 제조업자 브랜드(National Brand: NB), 판매업자 브랜드(Private Brand), 라이센스 브랜드(License Brand: LB), 무브랜드(Generic Brand: GB) 등으로 다양한 구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품구성은 유통업체의 매출 증대와 함께 제조업체들에게는 광고비, 물류비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운영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점포 표준화 및 운영 매뉴얼화,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에 의한 정보구축 체계,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및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 등 정보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기법 등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세계적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재고비 · 운영비 등을 최소화하는 유통총공급망관리(SCM: Supply Chain Manage - ment) 전략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내 대형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중소제조업체도 세계시장에 대한 판매망을 확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Box Ⅲ - 1 참조).

<BoxⅢ - 1> 한국암웨이의국내중소기업제품판로개척사례

세계적 네트워킹 판매회사인 한국암웨이는 지난 1998년 4월부터 자사제품과 한국산 제품을연계하여판매하는 「원포원(one - for - one)」사업을전개하고있다. 이는국내현지화사업의일환으로서미국산암웨이제품을하나내놓을때마다국내우량제품1개를 동시에 판매한다는것이다. 이사업을통해한국암웨이는국내시장전체매출의17% 수준인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비중을 1998년말까지 25%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포원」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체도 21개에서 1998년 9월초에는 32개로 늘어났고 판매제품의 종류도 90여개로 확대되었다. 이 사업은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유통망이 취약한중소기업들이판로를개척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한국암웨이는또한국산주방용수세미'스크립버즈'를전세계암웨이유통망을통해 연간4백 50만 상자를공급하며, VTR, 캠코더, 전자레인지, 의류, 신발등 1백여종을 북미지역에수출하는등수출증대에도기여하고있다. 아울러현재한국산인삼을미국현지공장에서다른물질과혼합하여복합영양제를개발할계획도갖고있다.

IV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

Ⅳ.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

1. 금융서비스 개방은 금융위기 재발을 가져올 것인가
2. 통신 및 전력서비스 개방은 공익성을 침해할 것인가
3. 스크린쿼터제도의 철폐는 국내 영화산업을 붕괴시킬 것인가
4. 법률 · 교육서비스의 개방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5. WTO 서비스협상이 우리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1

금융서비스 개방은 금융위기 재발을 가져올 것인가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부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종 자유화 조치에 의해 대부분이 개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내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실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외국은행에 대한 차별적 규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협상을 통해 이러한 차별적 규제가 철폐될 경우 상업적 주재 형태로 외국 금융기관이 진입하는 것이 보다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진입 확대에 대응하여 모니터링 체제의 확립 등 적절한 보완대책이 병행되어 실시될 경우 우리 경제가 외부의 충격에 대하여 면역성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금융거래의 총량과 상품의 종류 및 거래 참여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금융시장 전반의 폭과 깊이를 더해주는 등 금융중개기능(intermediation capacity)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중개기능의 향상이 가능한 이유는 반드시 금융중개기관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금융자유화가 금융중개기관들에게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기회를 주고 시장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투자가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금융중개기능의 향상은 투자의수준뿐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이중으로기여할 수 있다. 이는 자금중개능력이 높은금융기관의 존재가 투자 의사결정상의 왜곡을 줄이며 경제 내에 동일한 규모의 투자자금을 보다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흘러가게 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신용대출의 활성화나 대출금리의 하락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금융기관이 많아짐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일시적인 외화유통성 부족과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할경우 외국은행의 본점이나 재보험 등을 통하여 이러한 외부충격을 어느 정도 원활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외환위기시 국내은행은 위기발발과 함께 대출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외국은행 지점은 오히려 대출금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Ⅳ - 1>을 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 국내은행의 대출은 전년도 대비 5.4%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외국은행 지점은 15.7%의 대출 증가세를 기록한 사실은이러한전망을 뒷받침한다.

<표 Ⅳ - 1> 금융위기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의 대출 행태

(단위: 조원, %)

	일반은행		외은지점	
	대출금	전년대비증가율	대출금	전년대비증가율
1994	97	-	5.1	-
1995	127	30.86	5.4	5.23
1996	149	17.31	6.2	15.41
1997	212	42.91	8.4	35.82
1998	201	- 5.49	9.7	15.73

자료: 은행경영통계, 평잔기준.

특히, 외국계 금융서비스 공급기관들은 국제투자가나 국제적 신용평가사로부터 상대적으로 엄격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홍콩, 칠레 등의 국가는 은행시스템에 대한 외국계자본의 지분이 높았기 때문에 은행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향후 외국 금융기관이 진입이 많아지면 금융기관들이 보다 경쟁적인 환경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되므로 경영내용이 충실해지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즉, 개방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비용절감, 경영개선 노력을 배가할 것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우대금융혜택을 누리기 위해 더 이상 고비용이 드는 로비활동 등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은행 진입으로 여신심사기법 등의 측면에서 선진경영기법(best practices)의 전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의 무수익여신이 감소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은행들의 경우 州간 지점설치(interstate branching)에 관한 제한이 없어진 이후 부실여신이 평균 12 38% 축소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상과 같은 상업적 주재에 대한 자유화 이외에도 향후 서비스협상에서는 보험중계, 보험대리, 보험계리, 손해사정 등 보험 관련 업종에서의 국경간 공급(mode 1) 형태에대한개방요구가 예상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앞으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국경간 공급의 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간 공급 형태의 자유화는 이러한 추세에 뒤쳐지지 않게 하고, 온라인을 통한 뱅킹, 증권거래, 보험서비스, 금융정보서비스등의발전을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서비스협상에서는 ECN(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과

같은 대체증권거래소(ATS: alternate trading system)나 기타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 등 新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개방요구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新금융서비스가 자유화되면 금융서비스 수요자인 국내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금융상품의 종류가 많아져 자금조달과 운용 및 그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을 적절히 조합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존재는 기업들로 하여금 불확실한 경제환경 하에서 금리변동이나 환율변동에서 발생하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수단을 제공할 수있 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수준을 보다 높이는 것은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다시 우리나라가 e-비즈니스 네트워크와 관련 기술의 투자지로서 매력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은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시장의 혁신을 촉진시켜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반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최신 기술과 상품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서비스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며, 엄격한 위험관리에 기초한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제고시키게 된다. 외국 금융기관의 영향을 받아 국내 카드사들이 카드대금을 일정 비율만 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갚아 나갈 수 있는 리볼빙카드를 도입하고, 국내 보험시장에서무배당 종신보험이 활성화된 것이 좋은 사례이다.

또한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들은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전문소프트웨어, 데이터처리기술 등에 크게 의존하므로,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는 이들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창출하는 효과도 갖는다.

2

통신 및 전력서비스 개방은 공익성을 침해할 것인가

최근 신경제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관련 시장의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의 가속화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통신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무선통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서비스 시장은 한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 세계시장의 통합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통신서비스의 개방확대 요구는 필연적이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는 외자도입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 일정을 앞당겨 실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의 조기 확대이다.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하여 2001년부터 예정된 49%의 외국인투자 한도를 2년 앞당겨 1999년 7월부터 허용하였고, 동일인 지분제한은 그보다 앞선 1998년 9월 전면 폐지되었다(표 Ⅳ - 2).

그러나 49%의 외국인투자 한도는 외국인이 이사, 감사를 선임하며 사업추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치인 50% 이상에는 모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협상에서는 외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49%의 현행 한도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예상된다.

<표 IV-2> 기간통신서비스 관련 외국인투자 개방 내용(2001년 8월 현재)

		1997년 당시 규정	WTO 최종양허표 (1997.2.15)	현재
외국인 지분소유	한국 통신 (KT)	금지	1998년부터 20% 2001년부터 33%	1998.9월부터 33% 허용
	기타 사업자	유선: 금지 무선: 33%	1998년부터유.무선 33% 허용 2001년부터유.무선 49% 허용	1999.7월부터 49% 허용
동일인 지분제한	한국 통신 (KT)	1% (내국인만)	3% (내/외국인불문)	1999년부터 15% 허용
	기타 사업자	유선: 10% 무선: 33%	유선: 10% 무선: 33%	1998.9월 폐지
외국인 대주주	한국 통신 (KT)	금지	금지	금지
	기타 사업자	금지	1999년부터 허용	1999년부터 허용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력서비스 분야에서도 현재 발전(원자력 제외), 송전, 배전 및 판매 등만이 외국인투자 비율이 50%미만이고, 외국투자가는 제1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전력서비스 분야의 개방확대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와 결부되어 있다.

이와 같이 통신 · 전력서비스 분야에서 50% 이상의 외국인 지분소유가 허용될 경우에는 과거와는 다른 시장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들 공공서비스의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많이 갖게 마련일 것이다.

그러나 기간통신서비스에서 과반수 이상의 외국인지분을 허용하고 한국전력을 민영화하여 분할된 전력회사들 중 일부를 해외에 매각하더라도,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통해 공익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중요한 결정사항에 개입하여 공익성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일례로 영국정부는 민영화 대상 기업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소위 특별주(special share 또는 golden share)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별주 제도는 정부가 보유한 주식이 한 주만 되어도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으로서 통신 · 전력 등 국가기간 공기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정관의 특별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주주, 즉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Box Ⅳ - 1).

<Box Ⅳ - 1> 영국의 특별주 사례

영국은 전력산업의 민영화시 각 지역전력회사와 National Power社, 그리고 PowerGen社에 대해 각각 특별주를 보유하였다. 이러한 특별주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는 의결권이나 이사임명권은 없으나, 증자를 실시하거나 의결권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영국정부는 1996년에 처음으로 특별주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바 있다. 즉, 영국의 한 지역전력회사(SWEP社)를 인수한 바 있는 미국의 Southern Group이 1996년 National Power社를 인수합병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당시 영국정부가 특별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시킨 바 있다. 영국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송전과 배전을 하는 지역전력기업을 보유한 외국기업이 발전부문에서 상당한 독점력을 갖고 있는 중앙전력회사의 경영권마저 보유

뉴질랜드도 1990년 뉴질랜드텔레콤을 민영화할 당시 정부의 특별주인 키위주(kiwi share)를 두어 민영화된 뉴질랜드텔레콤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통신요금의상승을 막는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독립적 규제기관의 확립이나 특별주 제도 같은 장치의 도입으로 통신 · 전력서비스 등 기간서비스를 개방하여도 그 공익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한도의 완화나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시 해외매각 등기간서비스 분야에서 개방의 확대는 공익성을 보호하면서도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의 기회를 확대시켜 국내 기간통신사업의 마케팅 및 망시설 투자와 전력서비스의 시설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또한 외국사업자의 경영권 참여로 국내통신 · 전력서비스산업에 있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사업자의 활성화를 통해 통신 · 전력서비스시장의 경쟁 촉진이 기대되며,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다.

일부에서는 외국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진입확대나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가 소비자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방확대및 민영화 이후에도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원가상승 이상의 과도한 요금상승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개방확대는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혜택을 가져옴과 동시에 민영화에 의해 확보된 충분한 재원을 기초로 적절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인 통신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전력공급의확충을 도모할 수있게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해외매각은 정부의 개방화 의지를 외국인에게 확인시켜 줄 것이다. 즉, 이는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큰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를 가지고 있어 세계은행 그룹인 FIAS(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가 민영화를 통한 1달러의 외국인투자는 민영화와 관계없는 외국인투자를 0.88달러만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기업 해외매각분 이외에 추가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스크린쿼터제도의 철폐는 국내 영화산업을 붕괴시킬 것인가

시청각서비스(audio - visual service)는 통상적인 영상 · 음향서비스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가장 유망한 산업중 하나라고 하는 문화산업(culture industry)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분야이다. 즉, 전통적인 영화, 라디오 및 TV 방송 이외에 이러한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는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라디오 및 TV 방송에 대한 외국업체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은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영화배급 분야의 스크린쿼터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는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의 개방확대와 아울러 스크린쿼터 제도의철폐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

<표 IV - 3> 국산영화의 국내 시장점유율 추이(1998 2000)

(단위: 명, %)

	1998	1999	2000
한국영화관람객	12,585,575	20,983,217	21,258,644
외국영화관람객	37,585,079	37,122,277	43,749,825
총관람객	50,170,654	58,105,494	65,008,469
국산영화점유율	25.1%	36.1%	32.7%

주: 전국 관람객 기준.
자료: 문화관광부.

된다.

그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제도는 국산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규정한 것으로서 현재 의무상영일수는 총 146일이다. 이러한 연간 146일은 198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궁극적인 국산영화의 국내 시장점유율 목표 40%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관람객 수를 사용하여 산정한 국산영화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998년 25.1%에서 2000년에는 32.7%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공동경비구역 JSA ”와“ 친구 ”등의 흥행성공으로 4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Ⅳ - 3). 따라서 146일로 설정된 현행 스크린쿼터 제도를 축소하여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스크린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되어온 이유는 국산영화가 일정기간 관객들에게 노출되어야 그 영화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일반에 확산되어서 관객확보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네티즌들이 시사회 참가 후 그 영화에 대한 평을 급속히 전파시켜 일반인의 관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스크린쿼터의 유지 논리가 희박해진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는 스크린쿼터 제도로 국산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한다고 하여도, 예전과 같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할 수 있다.

<표 IV-4> 국산영화 수출액 추이(1998 2000)

(단위: 편, US $)

	1998	1999	2000
편수	31	75	38
편당평균가격	109,012	76,456	185,625
총수출액	3,379,374	5,734,242	7,053,745

자료: 문화관광부.

한편 최근 국산영화의 제작비와 마케팅비용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편을 제작하는 데에 몇 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국산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제 관객유치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의무상영 보다는 제작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위험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명분에 집착하여 실효성이 상실되어 가는 스크린쿼터 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고집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를 범하는 것이고, 이를 국산 영화제작에 대한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다 실리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또한 최근 국산영화의 수출이 <표 Ⅳ -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산영화를 포함하여 전체 우리 문화산업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스크린쿼터 제도를더 이상존속시키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스크린쿼터 제도를 통해 보호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시킴으로써 우리 문화산업의 대외진출을 확대시키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문화의 개방성은 한 국가의 개방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문화산업의 개방은 일반국민의 의식을 개방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서비스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문화산업의 개방을 확대시키는 게바람직하다.

4

법률 · 교육서비스의 개방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법률서비스와 교육서비스는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서비스 분야이다. 법률서비스는 외국기업들에게 국내법을 자문함으로써 첨단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를 성사시키기도 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외국법이나 국제법을 자문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대외진출 및 국제화에 기여한다. 교육서비스는 초 · 중등 교육과 대학교육 및 훈련 · 연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인 인적자본의 개발에 핵심이 된다.

현재 법률서비스 분야는 변호사 자격취득에 있어 국적제한 요건이 폐지되었고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에 따라 국내 변호사 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외국 변호사나 외국의 법률사무소가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최근 경제활동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국제법에 대한 자문 등 국제적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 법률사무소들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미국 등 현지에서 외국 변호사에게 국제적 법률문제를 의뢰하여 처리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직접 외

국변호사와 거래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보다 편리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WTO 서비스협상의 결과 외국법과 국제법 관련 자문을 중심으로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국제거래 관련 법률 자문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률서비스의 개방은 국내 법조인들로 하여금 선진화된 법률서비스 기법 및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법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유아교육기관, 초 · 중 · 고, 대학 및 대학원, 특수학교 및 학원 등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중 공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초 · 중 · 고등학교를 제외하고서, 대학 이상의 교육서비스는 향후 WTO 서비스협상의 결과 외국의 교육기관에 개방하라는요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학교운영 수익금의 대외송금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외국대학들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면, 최근 국내 교육제도를 불신하여 외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냄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기존 국내 대학을 자극하여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국내 초 · 중등교육의 위기 현상은 결국 비정상적인 대학교육에서 초래된 부분이 많으므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서비스의 개방은 초 · 중등교육에까지 그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이 활성화에 따라 향후 온라인 교육이

새로운 교육방법으로서 자리잡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게되어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이 기대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는 직장인들이 일과 후에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 훈련의 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WTO 서비스협상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향후 WTO 서비스협상 결과 선진국의 세계적인 서비스업체에게 우리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서비스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므로,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의 서비스시장 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외국의 서비스시장도 개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유망한 건설, 유통, 해운, 통신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개도국을 포함한 해외시장에 대해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건설서비스 분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상 결과 기존의 주요 해외진출 지역이던 중동지역이외에 동남아 지역의 건설시장도 개방이 확대될 것이므로, 우리 건설회사들이 이들 지역에서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표 Ⅳ - 5>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국내 주요 건설

<표 Ⅳ - 5>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액 추이 (1997 2000)

(단위: 억달러)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 7)
해외건설 수주액	108	140	41	92	54	22

업체의 부실화에 따른 대외신인도의 하락과 자금조달여건의 악화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자국 시장에 대한 개방을 점차 확대하여 나갈 것이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시장개방이 확대

<Box Ⅳ - 2> 국내 소매업체의 중국진출 사례

최근 신세계 이마트, 롯데 마그넷 등 대형 할인점들은 중국 주요도시에 점포를개설하기위해부지물색과 상권분석 등에박차를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할인점 시장이 점차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데다 중국의 WTO 가입이 연내 확정되면 시장규제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97년 상해에 1호점을 오픈했던 신세계 이마트는 2003년까지 상해 지역에 5개점을 출점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히고 부지 매입, 물류기지 확보, 브랜드 인지도 확산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임원 8명을대상으로중국어교육을정례화하고있다.

농심가가운영하는메가마켓도대련과청도지역을중심으로 시장조사를마치고농산품과냉동. 일배식품을중점취급하는대형매장을2 3년에추가개설할 계획이다. 메가마켓은 지난해 2월 심양에 1호점을 오픈했는데 8월 현재 월평균 30억원대매출실적을기록하고있다.

삼성테스코홈플러스도중국 및일본에출점하는점포를대상으로국내홈플러스 사업본부가 기술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테스코가 지난해 말 대만에 1호점을오픈했을때도국내할인점에서설계및시공을지원한바있다.

롯데 마그넷도 이르면 내년 초 북경을 중심으로 한 동부 해안도시에 점포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 강성득 마그넷 사업본부장은 "연말까지는 업체들이 국내 점포출점에 경쟁적으로 나서겠지만 상권이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내년부터는 국외시장출점을통한외형성장을고려해야한다"며"중국시장이여러가지측면에서장점이많다"고말했다.

자료: 매일경제(2001. 9. 13)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업체들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CDMA와 같은 분야에서향후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보다 늘어나게 될 것이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이미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유통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질 것에 대응하여 국내 소매업체들이 중국 주요도시에 대형할인점을 설립하여 이를 확대하거나 조만간 출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Box Ⅳ - 2 참조). 따라서 향후 WTO 서비스협상에서 중국의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이 일정대로 진행되거나 보다 가속화될 경우 우리 소매업체들의 중국진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아울러 인근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운서비스 분야는 UR에서 타결되지 못하였고, 그 후 후속협상에서도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결렬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WTO의 다자간 자유화 구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향후 WTO 서비스협상에서 해운서비스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세계 8위의 해운국으로서

<표 Ⅳ-6> 우리나라 해운 운임수지 추이 (1997-2000)

(단위: 억원)

연도	매출	지급	수지
1997	1,221.4	1,137.3	84.1
1998	1,618.2	1,461.0	157.3
1999	1,519.3	1,388.5	130.8
2000	1,680.7	1,507.5	173.2

자료: 해양수산부.

세계 6위(한진해운), 14위(현대상선) 및 25위(조양상선)의 3개 컨테이너 선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해운서비스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이 경우 <표 Ⅳ - 6>에서와 같이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해운 운임수지상의 흑자가 더욱 늘어나서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WTO 서비스협상이 우리 서비스업체에게 불리한 영향만을 줄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 아니라, 건설, 통신, 유통, 해운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본자료의내용에관하여문의사항이있으신경우에는
아래연락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화: 02)3460 - 1160 FAX: 02)3460 - 1077
http://www.kiep.go.kr

경제개방바로알기 ❸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001년 10월 25일 인쇄
2001년 10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경태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 - 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 - 4
전화 : 3460 - 1178 FAX : 3460 - 1144

인쇄 오롬시스템(주) 전화 : 2273 - 7011 대표이호열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 - 375호

【本書內容의無斷轉載 · 複製를금함】

WTO 서비스협상이란 무엇인가

신경제와 서비스산업

신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신경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서비스 개방의 효과

서비스 개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
유통서비스 개방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

금융서비스 개방은 금융위기 재발을 가져올 것인가
통신 및 전력서비스 개방은 공익성을 침해할 것인가
스크린쿼터제도의 철폐는 국내 영화산업을 붕괴시킬 것인가
법률 · 교육서비스의 개방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WTO 서비스협상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1179 FAX: 3460-1144